

초등학생의 유머감과 음악성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심 인 옥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Impact of Self-confid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lated to Sense of Humor and Music

In Ok Sim

Red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sense of humor and music on the self-confidence of elementary student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found differences between the impact of each participants' sense of humor and sense of music on self-confid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rised 265 children who were 3rd to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who lived in Seoul, Gyeonggi-do and Gangwon-do. The participants reported their sense of humor sense, sense of music and self-confidence on three separate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ANOVA and Kruskal-Wallis test. **Results:** The results showed an increase in self-confidence related to the higher income status, young aged mothers and birth order. Moreover, academic achievement was shown to relate to a high sense of humor and music, and self-confidence. The elementary students with a sense of humor and music and self-confid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Conclusion:** The abov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source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pplying sense of humor and music to improve the self-confid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 Humor sense, Music sense, Self-confide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 학생의 특징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상호의존적 또래관계 형성, 사회적 공동체의식 및 학업단계별로 이루어야 할 과업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학교환경에서 집단생활과 부모,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학업과정에서의 성취감을 통해 근면성과 함께 자아개념 및 자

신감 등이 성숙되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긍정적으로 직면하게 된다(Koh, Kim, & Noh, 2000; Sim, 2006).

최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로는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담감과 사회적 경쟁 구도 및 부모의 기대치 상승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열등감과 같은 위기갈등을 겪게 된다(Woo & Park,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위기의 상황에서도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 있는 행동적 태도가 강화 되어 있다면 다양한 문제를 부정적인 결과 없이 효과적

Corresponding author: In Ok Sim

Red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988, Fax: +82-2-824-7961, E-mail: hiraly@cau.ac.kr

투고일: 2014년 11월 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으로 해결하며 극복하게 된다(Choi, 2005; Kim, 2014; Kim, 2012; You, 2010).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긍정적사고와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개념은 다양하지만 유머감각과 음악성에 따른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공통의 의미가 존재 하며 긍정적사고와 자신감을 강화 시켜주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ennett, 2003; Dowling, 2002; Kim, 2002; Rew & Horner, 2003; Sim, 2006; Yang, 2012).

유머감각은 긍정적 사고와 함께 자신감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속성으로 유머감각을 증진하는 것은 아동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갖도록 하여 삶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대처능력의 중요한 근원인 자신감을 강화 시켜준다고 하였다(Kim, 2002; Sim, 2006). 특히 유머의 효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부정적인 불안과 긴장감, 위축 및 분노의 감정을 완화시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유머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Rew & Horner, 2003; Sim, 2006). 더욱이 초등학교 학생은 급속한 신체적, 심리적 및 정서적 성장과 더불어 유머감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유머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과 유머를 활용한 중재를 실시할 때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Bennett, 2003; Dowling, 2002). 그러므로 아동에게 잠재적 유머감각을 강화시켜 주거나 개인적 혹은 학교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최근에는 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음악성과 또 다른 예술적 감각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악성을 가진 아동은 인지적, 창의적, 예술적인 감각을 생산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와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며 역시 긍정적 사고와 다양한 음악적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긍정적 사고 및 자신감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Hwang & Kim, 2010; Yang, 2012). Yang (2012)은 음악성과 정서지능 및 사회성과의 관련된 연구에서 예체능 영역과 정서적 지지와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밝히고 있으며, Ji (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음악성을 활용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음악활동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과 함께 음악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며, 음악 감

상이나 연주활동은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서도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내적, 상호교류적인 갈등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음악활동을 통한 감정 표현은 내적인 안정을 심어주며 편안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자극을 돕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Lim, 2005).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기회로 새로운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게 되며 성공적인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된다. 즉 멋진 연주 및 음악과 함께 하는 활동은 자신의 기량을 증대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성취감을 통해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진다(Kim, 2012; Koh et al., 2000 ; You, 2010).

이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의 전체적인 발달과정에서 긍정적 사고를 강화하고, 학업성취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Han (2004)은 자신감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수줍음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곧 자신감 형성은 초등학교 학생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학령전기 아동이나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활동 및 효과에 대한 연구와 질한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머중재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있을 뿐 초등학교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머감각 혹은 음악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문헌을 통해 파악이 되는 것과 같이 긍정적 사고를 통한 자신감 신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유머감각과 음악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이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머감각과 음악성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초등학교생들에게 존재하는 유머감각과 음악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자신감과 관련된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초등학교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유머감각 및 음악성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추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의 수준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및 유머감각과 음악성의 수준이 아동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을 측정할 수 있는 관련된 도구를 활용하여 각각에 대한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과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를 3, 4, 5, 6학년 대상으로 각자에게 존재하는 유머감각, 음악성이 자신감의 정도와 자신감 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을 3학년에서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할 이유는 1~2학년 대상에게는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가 부족하다고 인식되었고 아울러 초등학교 교사들의 조언을 참고로 이와 같이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대상은 연구목적, 자율적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첨부된 설문지를 읽은 후 보호자의 동의와 학생 스스로 연구참여에 관심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G* 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0.15, 검정력은 95%로 설정하여 예측 변수를 10개 정도로 감안하여 파악한 결과 적정 표본 수 172명 정도가 파악되었으나(Faul, Erdfelder, Lang, and Buchner, 2007) 중도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수집인원은 280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15명의 설문지는 코딩 시 설문응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자료분석 가능한 설문지에 참여한 265명의 대상을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유머감각(MSHS), 음악성 및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측정도구는 신뢰성과 타당도가 증명이 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유머감각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Thorson과 Powell (1993)의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MSHS)를 Lee (2005)가 번역하여 수정·보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머감각에 대한 상황, 유머에 대한 자신감 및 유머 활용방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척도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고 이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유머감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이었다.

2) 음악성

음악성을 알아보기 위해 Yang (2002)의 다수 논문에서 사용된 도구를 Cho (2005)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본 도구를 선정할 이유는 음악성에 대해 개인의 흥미도 및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어 음악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까지이며 이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음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 본 연구에서 음악성의 도구 신뢰도는 .97이었다.

3) 자신감

아동의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가 개발한 척도(1985)를 기초로 하여 Rhee, Shin과 Song (1992)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초등학교 3~6학년용 자아지각 척도를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선정 이유는 자신감을 파악하기 위해 내면적 자신감, 대인관계 자신감 및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파악하는 세부적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본 연구의 척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으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α 는 .89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3월 10일~2014년 5월 30일까지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에 있는 중소도시 및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분포하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구목적의 충분히 후 기관장에게 협조 허락을 받았다. 연구진행을 허락한 학교에 설문지를 보내어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고 설문에 답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탈락자를 제외한 최종 265명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은 서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 차이는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65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205명(77.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7명(10.2%), 50대가 31명(11.7%)으로 전체 평균 44.16세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연령도 아버지와 같이 40대가 가장 많았고 178 (67.2%), 30대가 79명(29.8)으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36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11~12세가 각각 90명(30.0%), 92명으로 (34.7%)로 가장 많았고, 10세는 41명(15.5%), 13세가 35명(13.2)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비슷한 수준으로 남자는 123명(46.4%), 여아는 142명(53.6%)이었으며 아동의 전체 연령은 11.46세이었다. 부모의 경제수준은 300~400만원 미만이 90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이 77명(29.1%)이었고 100~200만원 미만이 48명(18.1%), 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50명(18.9%)으로 파악되었다.

아동의 종교는 기독교가 148명(55.8%)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주었고 불교는 32명(12.1%), 천주교 17명(6.4%), 종교가 없거나 그 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68명(25.7%)으로 많은 분포의 비율을 나타냈다. 형제 수는 아동 본인을 포함하여 1명이 97명(36.7%), 형제수가 본인 포함해서 2명은 130명(4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맏이인 경우가 153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업성취에서는 중위권 아동(성적 30~60% 해당)이 162명(6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권(성적 30% 이상)이 86명(32.5%), 하위권(성적 60% 이하)이 17 (6.4%)로 응답하였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 차이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과 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동의 자신감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연령대가 30대인 경우 아동의 자신감이 가장 높았다($p < .05$). 아동의 성별과 음악성과의 관련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경제수준과의 관련성에서는 음악성과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5$), 특히 자신감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가 많은 수록 자신감이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형제가 5명인 경우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p < .05$) 출생 순위에서도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첫째가 가장 자신감이 높았고 넷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출생순위가 낮아질수록 자신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유머감각($p < .01$)과 음악성($p < .01$) 및 자신감($p < .001$)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있었고, 음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Father's age		44.16±4.507
	20s	1 (0.4)
	30s	27 (10.2)
	40s	205 (77.4)
	50s	31 (11.7)
	60s	1 (0.4)
	Total	265 (100.0)
Mother's age		41.36±3.834
	20s	1 (0.4)
	30s	79 (29.8)
	40s	178 (67.2)
	50s	7 (2.6)
	Total	265 (100.0)
	Age (year)	
9		4 (1.5)
10		41 (15.5)
11		90 (34.0)
12		92 (34.7)
13		35 (13.2)
14		3 (1.1)
Total		265 (100.0)
Gender		Boy
	Girl	142 (53.6)
	Total	265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 200	48 (18.1)
	200~299	77 (29.1)
	300~399	90 (34.0)
	≥ 400	50 (18.9)
	Total	265 (100.0)
Religion	Christian	148 (55.8)
	Buddhist	32 (12.1)
	Catholic	17 (6.4)
	Others & none	68 (25.7)
	Total	265 (100.0)
Number of brother	1	97 (36.7)
	2	130 (49.1)
	3	31 (11.7)
	4	6 (2.3)
	5	1 (0.4)
	Total	265 (100.0)
	Birth order	1
2		91 (34.3)
3		16 (6.0)
4		5 (1.9)
Total		265 (100.0)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86 (32.5)
	Middle level	162 (61.1)
	Low level	17 (6.4)
	Total	265 (100.0)

성 및 자신감도 아울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 및 아동의 종교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과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 유머감각, 음악성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이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신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자기상관 검정과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연구 통계 분석결과, Durbin-Watson 값이 1.928로 자기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이하로 분석되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유머감각, 음악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 연령, 경제수준, 형제 수, 출생순위, 학업성취를 독립변수로 한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33.313, p < .001$). 이와 관련된 설명력은 4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유머감각($\beta=0.359, p < .001$), 음악성($\beta=0.309, p < .001$)과 일반적 특성 중 학업성취($\beta=0.216,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각 아동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정도,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간 상관관계 및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2. Comparison of Self Confidence by Characteristics with The Humor and Music Sense

Characteristics	Categories	Humor sense	Music sense	Self-confidence
		M±SD	M±SD	M±SD
Father's age	20s	98.00±0.00	72.00±0.00	124.00±0.00
	30s	73.93±12.60	110.93±26.85	150.96±18.82
	40s	73.47±13.14	117.06±26.27	150.10±22.01
	50s	71.19±11.06	112.61±25.25	146.26±20.57
	60s	96.00±0.00	83.00±0.00	157.00±0.00
	χ^2 (p)	7.127 (.129)	6.538 (.162)	3.087 (.543)
Mother's age	20s	98.00±0.00	72.00±0.00	124.00±0.00
	30s	73.19±13.63	116.16±27.22	151.71±23.50
	40s	73.74±12.55	115.63±25.97	149.84±19.78
	50s	64.57±11.41	115.43±25.32	126.00±27.93
	χ^2 (p)	5.502 (.139)	2.511 (.473)	9.218 (.027)
	Age (year)	9	75.25±13.40	119.25±22.79
10		71.07±13.02	110.88±24.57	144.34±23.69
11		74.07±12.74	113.70±26.14	150.46±19.66
12		73.57±13.76	117.62±26.07	149.72±21.65
13		73.94±11.20	117.94±29.79	152.14±23.49
14		73.67±19.76	144.67±3.51	151.33±10.02
χ^2 (p)		1.828 (.872)	8.204 (.145)	4.672 (.457)
Gender	Boy	72.95±13.70	107.40±29.00	147.65±24.15
	Girl	73.84±12.31	122.74±21.44	151.42±18.80
	t (p)	-0.551 (.582)	-4.937 (< .001)	-1.425 (.155)
Monthly income (10,000 won)	less than 200	70.15±12.81	113.60±24.93	144.00±24.87
	200~299	73.23±13.57	109.68±29.04	145.92±21.09
	300~399	73.37±12.49	117.09±24.54	153.19±20.11
	400 or higher	76.98±12.43	124.06±24.48	154.54±19.23
	F (p)	2.321 (.076)	3.293 (.021)	3.663 (.013)
Child's religion	Christian	73.90±13.02	119.16±24.83	149.78±21.08
	Buddhist	72.59±9.78	112.00±26.04	151.22±18.30
	Catholic	76.71±16.10	116.12±29.63	152.65±23.48
	Others & none	71.97±13.33	109.49±27.96	147.94±23.48
	χ^2 (p)	2.302 (.512)	7.229 (.065)	0.696 (.874)
Number of brother	1	72.45±12.27	115.12±24.65	148.90±21.15
	2	74.40±13.48	116.08±27.72	150.95±22.16
	3	69.16±12.18	112.39±23.55	143.23±17.96
	4	74.17±11.46	108.17±41.10	138.67±21.24
	5	64.00±0.00	145.00±0.00	157.00±0.00
	χ^2 (p)	9.535 (.090)	4.046 (.543)	11.533 (.042)
Birth order	1	74.25±13.54	115.48±26.40	151.51±22.41
	2	73.09±11.61	116.48±25.55	150.62±17.27
	3	69.56±15.42	116.63±25.74	133.94±26.57
	4	67.50±6.40	97.00±47.74	128.00±16.51
	χ^2 (p)	2.756 (.431)	0.549 (.908)	12.573 (.006)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76.26±12.55	123.36±26.29	160.60±20.14
	Middle Level	72.65±13.01	112.52±25.56	145.75±19.40
	Low Level	66.47±11.36	105.94±25.81	131.71±23.11
	χ^2 (p)	11.612 (.003)	14.892 (.001)	44.235 (< .001)

1.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정도

초등학교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과의 정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각 개념과 관련하여 어머니 연령, 경제수준, 형제 수, 출생순위, 학업성취부 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자신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 30대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아동의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어머니의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의 지지를 통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방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Choi (2005)의 연구에서도 초기에 부모가 사용한 육아방식에 따라 아동 발달의 기본 틀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도 아동의 자신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수준으로 아동의 자신감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곧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아동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Koh 등 (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안정되고, 편리하고, 쾌적한 가정에서 불안감 없이 적극적인 사회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자신감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도 경제적 수준은 아동의 자신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발달과 양육을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아동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자신감 발달을 성공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가족 내의 환경 개발을 위해 부모 및 사회에서의 지지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형제 수에 따라서는 형제 수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동의 형제수가 5명인 경우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수가 많을수록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협동심이나 자율성을 통해 사교적이고 타인과 잘 어울리려고 하는 성향과 함께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Kim (2006)의 연구에서는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성취 결과 및 자신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학교 적응 능력, 자기조절능력이 있으며 자신감등이 더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출생 순위에서는 첫째 아동이 가장 자신감이 있었고, 출생 순위가 늦어질수록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역시 부모의 관심이 첫째 아이에게 집중이 되고 적극적인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열의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출생순위를 통하여 알아본 국내 연구가 많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Table 3. Correlation Matrix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Self-confidence	Humor sense	Music sense
Self-confidence	1		
Humor sense	0.552***	1	
Music sense	0.512***	0.410***	1

*** $p < .001$.

Table 4. Impact of Self-confidence in Humor and Music Sense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Constant)	73.894	13.910		5.312	< .001
Humor sense	0.594	0.084	.359	7.107	< .001
Music sense	0.251	0.041	.309	6.125	< .001
Mother's age	-0.335	0.273	-.060	-1.226	.221
Monthly income	1.260	1.013	.058	1.245	.214
Number of brother	-0.793	1.344	-.031	-0.590	.555
Birth order	-2.080	1.721	-.066	-1.208	.228
Academic performance	8.161	1.834	.216	4.450	< .001

$R^2 = .462$, $F = 33.313$, $p < .001$

보이며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음악성과의 관련성으로는 아동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성별에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보다 음악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며, 음악적 감수성과 표현력, 음악적 사고력이 높으며, 여러 조건에서 여자 아동은 남자보다 음악을 접할 기회가 좀 더 많아 음악적인 성향이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는 여아들이 먼저 사춘기를 맞게 되고 남자 아동보다 성숙이 더 빨리 발달되어서 음악적 발표능력이나 음악 활동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Siebenaler (2008)의 연구에서도 여자 아동들이 음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남자 아동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그러나 20세기 초기의 유럽 학자들은 음악적 소질은 선천적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음악성은 선천적인 잠재력과 환경 모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Kim, 2010). 이러한 차원에서 선천적 혹은 성별에 의해 나타나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환경적 지지 및 아동의 음악적 사고력을 계발시켜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수준도 음악성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음악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아동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초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다.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음악적 활동하고도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지지는 아동의 음악적재능을 위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근거를 통해 작고 크게 이루어지는 연주회 참석 및 스스로의 연주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동들은 스스로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며 이어 자기효능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져 결국 자신감을 발달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학업성취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유머감각, 음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학업에 따른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아동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나 대처능력이 뛰어난 대상들이며, 지적능력, 긍정적 사고나

대처능력은 유머감각이나 음악성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Sim, 2006)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Woo와 Park (2008)의 연구에서도 유머는 긍정적 사고를 강화시켜 아동의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이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Kuiper et al, 2004; Silva, 2012).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유머적 의식구조와 긍정성이 학업과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 및 아동의 종교와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과의 영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과 유머감각, 음악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유머감각 및 음악성과 자신감과의 연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추후 가족환경 설정 및 학교교육의 방향이나 실무적인 중재를 위해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Bennett, 2003; Dowling, 2002; Kim, 2002; Rew & Horner, 2003; Sim, 2006; Yang, 2012)에서도 유머감각의 특성은 음악적 흥미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머감각은 곧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의 형성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머감각이 있다는 것은 아동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갖도록 하며 아동이 스스로 삶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우며, 동시에 스스로 자신감 있는 생각과 행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2000; Kim, 2002; Sim, 2006).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유머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직면한 과업을 용이하게 해결하도록 도우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아동의 음악성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음악 감상이나 연주 활동의 기회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기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 내적인 안정감을 심어주어 정서적인 자신감을 강화시킨다(Lim, 2005).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소위 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음악 활동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Kim (2010)의 연구에서도 음악적 수준이 높은 아동은 높은 감수성과 직감력 인내력, 리더쉽, 독립적인 자율성 및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음악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고 음악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외부활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전체 삶의 과정에서 자신감이 있는 인격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한다(Kim, 2012; Shin, 2001; You, 2008).

유머감각을 통한 행동의 확장과 음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사회적 관계 및 목표 성취 등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조정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고와 행동양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각각의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의미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이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교육의 과정, 교육환경 및 학교 보건 실무에서도 건강증진 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생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결과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유머감각, 음악성, 학업성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즉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자신감이 높아 학교생활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유머감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유머감각은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키면서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Woo & Park, 2009)을 이룬다. Sim (2006)의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유머증재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친구관계형성이 강화되면서 자신감 있는 행동을 나타내었던 결과는 즉 유머감각과 자신감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좋은 유머감각이 바탕이 된 자신감은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는 물론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Cann과 Calhoun (2001)도 유머감각은 교사 관계 및 교우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유능한 능력이 있고, 특히 외향적, 협동적이고 흥미롭고 창의적이며 지적 그리고 안정적인 정서를 지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머감각의 후광효과는 아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 의과정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내의 교육방법에 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유머감각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일상생활에서도 유머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음악성과 자신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성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자신감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자신감이 좋다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아들에게 방과 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이 실제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습부진아동들의 사회성발달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Yun, 2013). 그리고 Hwang과 Kim (2008)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아의 음악성도 연령에 따라 향상될 수 있으며, 음악활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성과 정서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한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성이 신장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감을 아울러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이 파악이 되었다. 학업성취능력은 학교 및 일상생활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학교 내 많은 과업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자기 스스로의 목표 성취를 위해 자기의 통제 능력과 함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성취감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자신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머감각과 음악성은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이는 유머감각이 있을수록 자신감을 높여주며 음악성이 높을수록 활동적인 면에서의 자신감 있는 사고와 행동양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유머감각과 음악성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대안과 관심이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유머감각과 음악성과 자신감의 상관관계 그리고 유머감각, 음악성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265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짧을수록 아동의 자신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고 성별에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은 음악성과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신감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에 따라 형제가 5명인 경우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생순위에서는 첫째가 가장 자신감이 높았고 출생순위가 늦어질수록 자신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성취에서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 및 아동의 종교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학생의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신감에서는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본 연구 분석 결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머감각, 음악성 및 개인의 일반적 특성 중 어머니 연령, 경제수준, 형제 수, 출생순위, 학업성취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각 및 음악성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합적인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로 본 연구에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세대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한적인 경쟁과 주변 기대치의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과업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학령기 후기의 아동들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 이 시기의 자신감은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아동이 성공적으로 발달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새로운 집단에서 잘 적응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신감은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유머와

음악성은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에 따른 상관관계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몇 가지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부적 개념을 포함한 항목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더 나아가 사회의 환경에서 유머감각을 강화시켜줄 수 있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언어표현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음악성 개발을 위해 음악과목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 및 음악적 흥미와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령기 초등학교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업 성취, 사회성 발달 및 올바른 인격형성의 기반이 되는 자신감 있는 사고로 인생의 한 발달과정을 직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더 나아가 긍정적 사회적 적응 및 창의성 향상과 융통성 있는 사고를 길러 한 아동을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아동의 유머감각이나 음악성을 향상시켜 긍정적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학교교육의 변화와 사회적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 Bennett, H. J. (2003). Humor in medicine. *The Southern Medical Journal*, 96, 1257-1261.
- Cann, A., & Calhoun, L. G. (2001). Perceived personality associations with differences in sense of humor: Stereotypes of hypothetical others with high or low sense of humor.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4(2), 117-130.
- Cho, M. H. (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music program for attention deficit and music interest 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Choi, M. J.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life adjustment and creative disposi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2(2), 223-243.
- Dowling, J. S. (2002). Humor: A coping strategy for pediatric patients. *Pediatric Nursing*, 28(2), 123-130.

- Faul, F., Erdfelder, E., Lang, A.-G., & Buchner, A.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USA.
- Hwang, I. J., & Kim, E. J. (2010). The effects of playfulness on musical character and attitude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4(5), 55-78.
- Ji, E. M. (2001). *The effects of musical activities on the emotional stabilization and the self-esteem of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D. H. (2002).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resilience in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2000). *The effect of constructivist teaching - learning to the change of music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Korea.
- Kim, H. K. (2010). *Plans to develop potentials of the gifted in music with musical cognitive thinking and cooperative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Kim, J. S. (2012). *Effects of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for children with under achievement on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 Kim, K. H. (2014). *Children's participation in ski clubs on confidence, Problem solving skills, and living manner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between the only child and sibling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Y. (2005). A study of stress,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 in school 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1), 83-89.
- Kim, M. Y. (2008). Historical studies: Laughing, the comic, and the musical comicality: Focusing on the change of meaning in music in the 18-19th century. *Journal of Music and Therapy*, 13(1), 9-30.
- Koh, Y. J., Kim Y. S., & Noh J. S. (2000). Contribution of behavioral disturbance,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to the self-perceived social competence in Korean elementary -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2), 65-78.
- Kuiper, N. A., Grimshaw, M., Leite, C., & Kirsh, G. (2004). Humor is not always the best medicine: Specific components of sense of hum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umor*, 17(1), 135-168.
- Lee, J. S., & Cho, A. M. (2005). The effects of youth's humor sense and style on stress countermeasure and heal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79-100.
- Lim, E. J. (2005). *The effects of group music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esteem, confidence, soci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Rew, L., & Horner, S. D. (2003). Youth resilience framework for reducing health-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8(6), 378-388.
- Rhee, U. H., Shin, S. J., & Song, Y. J. (1992). Development of a self-perception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Yonsei Journal of Euthenics*, 6, 175-191.
- Shin, G. S.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appreciation activities focused on musical concepts on music understanding and musica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Siebenaler, D. J. (2008). Children's attitudes toward singing and song recordings related to gender, ethnicity, and age. *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7(1), 49-56. <http://dx.doi.org/10.1177/8755123308322275>.
- Silva, R. L. (2012). Humor and music to reduce the stress and pain related to invasive diagnostic and therapeutical procedures in patients with hematological malignancies. *Ann Hematol*, 91, 133-134.
- Sim, I. O., & Han, K. J. (2006). A study of humor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hospitalizatio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2(1), 114-121.
- Sims, W. L. (1985). The effect of high versus low Thorson, J. A., & Powell, F. C. (199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1), 13-23.
- Woo, S. Y., & Park, K. J. (2009).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113-127.
- Yang, S. H. (2002). *The influence of music play upon musical attitude in the singing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Korea.
- Yang, S. Y. (2012). A study on the phased inclusive activity approach for the 3rd and 4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for the improvement of basic Musica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199-225.
- You, G. H. (2010). *Impact of participation in challenging activities on confidence and intrinsic motivation amo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Yun, G. K. (2013). The effects of a movement-based after-school music program on music underachievers' musical achievement, social development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3), 183-212.